

21세기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

제함기 전문업체로 자리매김

“대부분 기업들이 수주업체만을 거래선이라고 간주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부품 공급업체와 협력업체를 포함해야 됩니다.”

수많은 포장기계분야에서 제함기를 전문으로 업계를 이끌고 있는 (주)대현코퍼레이션 정병욱 사장은 “거래선 모두가 공존공영해야 기술적 진보는 물론 안정 경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983년 중후물산(주)을 시작으로 무역대리점업무를 시작한 대현은 일본 NMB 신흥통신사업부와 에이전트를 체결하고 다음해 사명을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현이 포장관련 설비의 제조를 시작한 것은 지난 87년 엔지니어링사업부를 신설하여 전자동계량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부터이다.

이태리 SIAT의 봉합기 에이전트 체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포장기계 사업은 88년 포장기 사업부를 신설하여 영업을 개시하면서 외국의 우수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국내외에 자사 생산제품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89년에는 일화용주사기침 전자동조립기 국산 1호를 개발함과 동시에 로봇트팔레타이저의 판매, 대현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제함기(ABF-T)를 개발, 제함기 전문업체로 나서게 됐다.

이때 제함기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캐나



▲(주)대현코퍼레이션 정병욱 사장

다 WEXXAR사와 제함기 기술제휴를 맺고 91년 구소련에 제함기를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해외에 수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대현은 미국 LYNCH(케이스 팩커), 일본 KYOWA(자동결속기)와 에이전트를 체결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다음해에는 고유모델인 ABF시리즈를 개선시킨 신모델을 발표하고 까다롭기로 잘 알려진 일본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93년에는 VCSM(비디오케이스 실링기)의 일본, 말레이시아 수출, 컬러믹싱기계 말레이시아 수출, 제함기 싱가포르 수출, 제함기 일본수출



▲ 대현코퍼레이션 개발실

백만불 달성 등 창업 10년만에 회사의 안정성을 이루어 포장기계업계에서 견실하고 모범적인 업체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속적인 개발투자를 통해 94년에는 제한기 신모델 'ABF-TA'를 발표, 케이스 팩커 개발, 로봇트레이서 개발 등 신기종을 출시해 국내외에 대현의 명성을 굳혔다.

이같은 성장은 매출현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88년 16억원, 91년 30억원, 93년 64억원의 끊임없는 매출신장을 이루었으나 95, 96년 업계의 경기불황으로 소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상황으로 볼 때 현상 유지라는 측면도 호경기의 잠재력을 포함한다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수출 비중에서도 92년 16만달러, 93년 89만달러, 94년 200백만달러에 이르는 등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 경기침체, 시장수요의 한계로 내수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성장을 거듭하던 대현은 지난해에 열린 IPP 96에 참가신청을 했다가 수출 및 납기와 맞물려 부득이 참가를 못하자 향간에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 문의가 잇따르고 거래업체들도 진의를 파악하는 바람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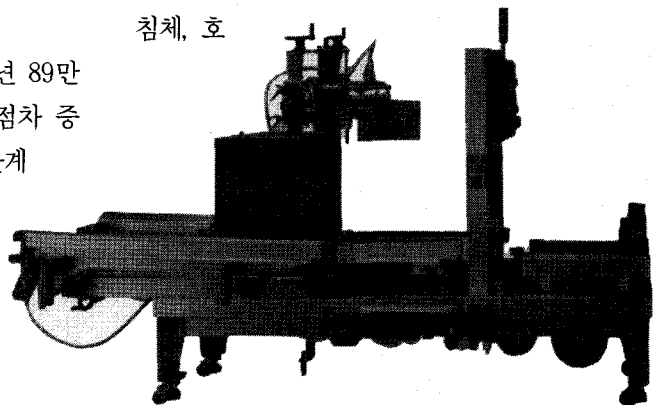
안정기반위에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대현은 '품질우선'을 목표로 끊임없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환경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지난해 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개발하는 등 포장과 환경에 대한 연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경기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저코스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정 사장은 "어느 한 기업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동보조를 맞춰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올해 전망마저 불투명해 체감강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며 "기업의 생존전략은 주변환경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현이 수출에 눈을 돌려 비중을 높여가는 것도 국내시장에서의 출혈경쟁보다는 외국의 시장을 개척, 거래선을 늘려 안정성장을 이루자는데 있다.

이는 경기의 침체, 호



▲ 대현의 주력품인 제한기

전시에도 영향을 적게 받아 개발투자를 높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기술개발 없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대현의 제품이 당당하게 맞설수 없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보수적인 포장기계 업계도 보수성을 탈피하여 선의의 경쟁하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에 있어 생산설비의 후공정에 속하는 포장업은 경기영향을 크게 받아 포장기계 제작업체는 당연히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포장라인도 장치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 제품의 마케팅 측면에서도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수행하는 포장설비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생산, 공급하는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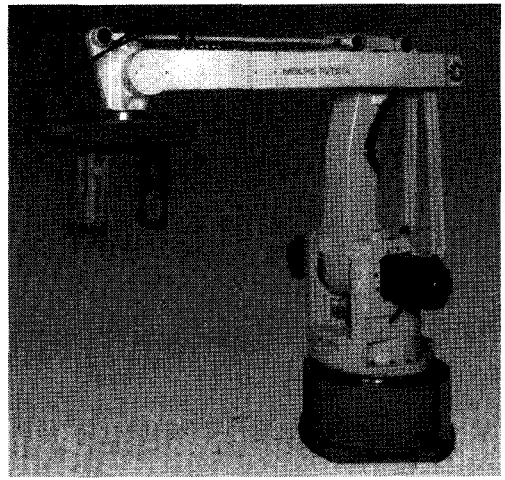
“업체의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 사장은 “인정받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기능면에서 완벽하고 디자인이 우수한 기계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 지적했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품이 작업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매의욕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국산 기계들은 디자인을 멀리하다보니 기술력은 물론 구매의욕마저 뒤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기계에 있어서 디자인이 강조되는 것은 외관상 청결하고 미려한 제품은 관리측면에서도 보수·점검이 잘 이루어져 에리움이 적고 싸이클 타임이 길어지는 등 사용에 관심을 갖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고 생산성도 높아져 경쟁력이 높아지는 일거다득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 사장은 “포장기계도 기술집약으로 양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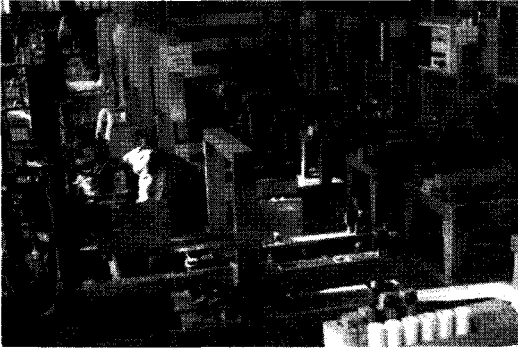
▲ 최근 사업을 시작한 로봇 제조

제가 되면 코스트다운은 물론 부품표준화, 공동화가 이루어져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부품산업이 기능면에서는 만족하면서도 시장형성이 미비한 것은 부품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제조메이커들과의 연계가 부족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이지만 경쟁은 필요합니다. 선의의 경쟁이 최선이겠지만 과당 출혈경쟁이 지속되면 결국 도산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라며 정 사장은 최근 수주에 급급한 제 살 깎기식의 경쟁업체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완벽한 기계를 생산하지 못하면 A/S 등 후속경비가 커 유지가 어렵고 수출의 경우 국가 이미지마저 실추시켜 전체 기계메이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인정받고 해외에 진출, 지역상황에 따른 제품을 생산한다면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현의 공장 내부

대현은 전년대비 10%라는 성장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목표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활용하고 외국진출을 늘려가면 무난하리라 예상된다.

이 회사는 외형성장이라는 목표를 올리는 것보다 내실을 기해 제반 경비를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 하나가 기존 거래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포함된다. 물론 대현의 일본시장 진출은 국내에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기술선진국에 무난히 입국했고,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현지 에이전트를 두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중동, 남미까지 발길을 넓힐 수 있는 점도 거래선 관리가 잘 되었다는 증거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봇사업에 나선 대현은 일본 미쓰비시전기에 납품을 시작했고 본체 이외의 주변기기를 다음 달부터 수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합기를 중심으로 한 팔레타이저 등에 로봇을 적용시킨 첨단 제품으로의 발전이 빨라지게 됐다.

“국내 중소기업은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자금과 기술문제인데 현재도로는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기업의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정 사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진단하며 “중소기업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수기업도 어려움을 겪게 돼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이 미친다”고 말했다.

실적과 담보위주의 지원보다는 신용, 성장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키워나간다면 기술축적과 함께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계산이다.

대현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제합기, 케이스 실러 및 로봇트케이서, 랩핑기, 라벨링기계, 잉크젯프린터, 비디오케이스실링기, 컬러믹싱기, 자동결속기 등 외포장기계와 계측·계량부품, 동력전달시스템, 각종 살균처리기 등 물류자동화설비 등이다.

품질, 기술집약, 도전과 창조, 상호 화합, 신뢰·인화단결로 신의를 지키며 동료에 구축으로 21세기 풍요로운 미래산업을 열어가고 있는 대현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고객이 있기에 품질이 있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 대현’을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 사고로 도약을 준비하는 이 회사는 창조력, 기술력, 기획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신기술 개발에서 부터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현의 전직원들은 땀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오선진 기자